

식별 - 기도와 활동의 기점

이제 내가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여러분의 지식과
 섬세한 감정으로 옳은 것을 분간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필립 1.9-11)

영적 열망에 담긴 꿈

돌이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보노라면 지난 날의 잊혀진 꿈들이 새롭게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꿈과 희망을 지닌 한 씨앗, 어쩌면 그것이 하느님 앞에 선 우리의 참된 모습인지 모른다. 나는 어떤 꿈을 지니고 있었는가?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들에 의해서 지금은 짓눌려 박살나 버린 꿈들을 발견하고선, 아! 그것들을 지금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속에 남아 나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생동감으로 나를 되살려 주는 꿈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지난 날의 잊혀진 꿈을 되살려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며 부르신다. 아니, 어쩌면 먼 훗날 당신과 함께 나눈 꿈을 되돌아보며 “주님, 당신을 따라 당신과 함께 당신의 꿈을 나눈 것은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가장 ‘순수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꿈 안에 숨겨진 우리의 소명, 즉 당신 안에서만 발견되고 완성되는 참다운 소명을 일깨워 주신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영성생활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한몫을 담당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각성되어 마음 속에서 새롭게 자리잡기 시작하는 하느님을 향한 열망.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은 점차로 우리 안에 도사린 또 다른 열망들, 즉 이기적인 욕심과 관심으로부터 정화되어 더욱더 분별되고 질서 있는 사랑에 의해 제한되는 그러한 열망으로 표현된다. 성령의 일하심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다. 그분께서는 참다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 인간이 지닌 조건의 굴곡을 따르시면서 우리가 지니는 자연적 열망들을 충동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 열망들을 더 의미 있고 참다운 꿈들로 바꾸어 가신다. 그렇기에 영적인 열망을 지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은혜이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그 근본목적에 향해 이끄시기 위해 우리가 은총의 힘에 의해서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충동하고 계신다. 그런 연유로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더 깊이 성장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열망을 지니게 되고, 그만큼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싶어한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움터 나오는 진정한 영적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구원의 신비를 향해 눈을 뜨게 해주고, 하느님의 은혜에 의해 다시 이 열망은 당신의 구원계획을 향해 더욱더 개방되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간다.

우리의 꿈을 일깨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닌 꿈을 일깨우고 키우도록 초대하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평범한 일상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요한 1,36) 보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와 그의 동료는 그분을 따라갔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의 일상적 직무에 몰두해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 “군중이 예수께로 밀려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 예수께서는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었고, 어부들은 거기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두 척) 중의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신 다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라고 그에게 요청하셨다”(루가 5,1-3).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늘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그 날 그 순간 거기에 담겼던 모험과 갈등, 행복은 오직 먼 훗날 되돌아볼 때나 발견되는 그러한 행복일 것이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아마 이 날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을 것이다. 꿈은 오직 뒷날 그제껏 살아온 삶의 빛 안에서 되돌아볼 때 그 의미와 행복을 드러낸다.

주님께서서는 아주 도전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신다. 안드레아와 그의 친구에게 “와서 보시오”(요한 1,39) 하시며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그 단순함이 너무나 나를 놀라게 한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공약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이렇다 할 분명한 비전이나 약속도 제

시하지 않으신다. 키 작은 자캐오에게 “자캐오, 얼른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 집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루가 19.5) 하셨으며,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당신네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시오”(루가 5.4) 하셨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한다. 베드로는 좌절의 경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났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치겠습니다”(루가 5.5). 마르타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시선을 예수께 돌렸을 때,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마르타를 만나 주셨다(루가 10.38-42 참고).

이러한 일상적인 삶 안에서 그 한복판에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분께 보이는 반응은, 마치 베드로 사도께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루가 5.8) 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분께 대한 경외하는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오직 그 크신 사랑에 의해 비추어지는 자신의 죄스러움에 대한 깊은 자각이 담긴 바로 그러한 경외하는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주님의 약속과 나의 응답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죄인의 심정에

하느님께서서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신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이사 65,17)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 넣어 살려 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에제 37,14) 하신다. 주님과 함께 나눈 꿈이 태어나고 자라난 내 마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나의 ‘고국’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따라 오라시며 우리를 늘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초대하신다. 그리고 그 초대 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공동번역 마태 28,20) 하시는 당신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마음은 늘 하느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응답된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라나선 삶이고, 이 응답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 바울로께서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공동번역 필립 1,9-10) 하시며,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공동번역 필립 3,8) 하고 말씀하신다.

참된 지식이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어 행하는 덕을 의미한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교하는 이들의 강론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숨겨진 그 무엇



을 찾아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기도 한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할 때,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어머니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금방 알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생신날 무슨 선물을 사 드려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 지니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의 진실 속에 담아 주신 그 순수한 꿈을 통해 하느님을 위해 내가 무엇

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거기에는 길게 심사숙고해야 할 시간도 필요 없는 너무나도 뚜렷한 초대가 담겨 있음을 금방 알게 되기도 한다.

실천적 지혜로서의 영신식별

따라서 실천적 의미에서의 영신식별이란 기도와 활동의 통합성,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묶어 주는 끈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지한 꿈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를 다루는 문제이다. 영신식별의 지혜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혜이지 결코 이론적이거나 철학적, 혹은 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루가 6,20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니” 하신다. 솔직히 나는 신학자로서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시간의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복잡하고 고상한 논문을 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적 가치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가난이 담고 있는 복음적 행복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진지하게 가난한 삶을 나누며 동참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행복이다. 그리고 그 가난함의 복음적 행복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늘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혹은 감실 앞에 앉아 조배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한복판에서 복음적 가치를 자각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애쓰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신식별의 가장 중요하고 실천적인 교육의 현장은 바로 매일의 양심성찰이다. 양심성찰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0-15분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자신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돌이켜보고 감사드리며 새로운 응답을 향한 새 결심을 하는 양심의 기도이다. 이러한 양심성찰을 실천하면 우리는 영신식별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나누는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증가시켜 가게 될 것이다. 즉,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위의 사물들에 대해 지니는 태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참다운 관계들, 즉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다운 관계의 바탕 없이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려는 것은 거짓이고, 그 거짓 속에서 참다운 영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결국, 영신식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태도에 관심을 둔다. 현장에서 나의 전부를, 혹은 내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물론 하느님이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 속에서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 지향하는 원리와 목표는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기에, 자기 희생과 손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단지 허위이고 거짓이고 위선일 뿐이다.

*** 매일의 양심성찰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함**

1.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삶을 통찰하고 내 마음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민감하고 기꺼이 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보시듯이 나도 내 자신을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합니다.

2. 감사의 기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나 자신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매 순간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란 아무리 미소한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음미하고 참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나 혹은 언뜻 보기에 무의미한 것일지라도 내가 이제껏 받아 온 구체적이고 독특한 나의 개인적 선물들에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깊은 의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창조의 은혜 : 내 자신이 부모님을 통해 생명으로 초대된 신비에 감사
- 구원의 은혜 :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신앙과 구원의 신비에 감사
- 부르심의 은혜 : 내가 받은 소명과 재능과 능력에 감사
- 특수한 은혜 : 나의 삶 안에서 내게 베푸신 고유한 은혜들에 대해 감사

3. 하느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응답에 대한 실제적 관찰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내적 기분, 감동, 움직임 등을 관찰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셨고, 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시는 죄스러운 요소들은 무엇이었는가? 또는 내가 떨쳐 버리도록 바라시는 죄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나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나누는 여러 관계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일상적 직무들 안에서 오늘 하루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가? 나의 재능, 시간, 은혜, 금전 등을 정의롭고 자비롭게 사용했는가?

4. 회개로 부르심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조명 아래서 나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데에는 정직함과 용기와 개방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 자신의 죄스러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더 나아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 가까이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5. 희망 찬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심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 희망을 심어 주십니다. 이 희망은 내 자신의 강함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꿈 안에 은총을 내려 주셔서, 하느님의 힘이 우리의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묵상 성구

필립 1,9-11 이제 내가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여러분의 지식과 섬세한 감정으로 옳은 것을 분간하게 되는 일입니다.

요한 1,35-51 그분은 그들에게 “와서 보시오”하고 이르셨다. 이에 그들은 같이 가서 그분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지냈다.

- 루가 5,1-11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당신네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시오.
- 루가 6,17-26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 1베드 2,1-3,17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 필립 3,7-21 이제 나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고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성찰

1. 나는 어떤 영적 열망들을 지니고 있습니까? 나를 나답게 하는 소명이 담겨 있기에 늘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열망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 성장해 오면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생기를 주는 순수한 열망으로서의 꿈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2. 나의 소명을 일깨워 준 주님과와의 만남을 나는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나는 나의 일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으며, 그 부르심을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